

# 강북구 지역주민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조사

2021. 3.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여성가족부 지원  
서울시 강북구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Gangbukgu Health Family Multiculture Family Support Center



## 1. 조사목적

여성가족부의 '세상 모든 가족 함께'라는 슬로건에 맞추어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지역사회 주민들의 '다양한 가족 수용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다양한 가족 수용성 증진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강북구 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함.

## 2. 조사 내용 및 방법

### 1) 조사 내용

여성가족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질문 내용의 일부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문항은 23문항으로, 일반적 문항 4문항, 가족 의미 인식 2문항, 사회적 수용도 7문항, 개인적 수용도 6문항, 지원 정책 수용도 4문항을 사용하였음.

### 2) 조사 방법

2021년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구글)을 통해 센터 회원과 지역 내 유관 기관 등을 통해 질문 문항을 보냄. 총 247개 응답 중 강북구 내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163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함.

## 3. 조사결과

### 1) 일반적 특성

#### (1) 성별

본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표 1>과 같이 80% 이상이 여성(137명)으로, 남성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표 1> 조사대상자의 성별

(N=163)

구분	명 (%)
남자	26 (16%)
<b>여자</b>	<b>137 (84%)</b>

(2) 연령

본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는 <표 2>와 같이 40대(64명), 30대(42명), 50대 이상(41명), 20대(16명) 순으로 나타남.

<표 2> 조사대상자의 연령대

(N=163)

구분	명 (%)
20대	16 (10%)
30대	42 (26%)
<b>40대</b>	<b>64 (39%)</b>
50대 이상	41 (25%)

(3) 직업

본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표 3>과 같이 주부(43명), 공무원(41명), 관련 기관 종사자(37명), 보육교사(22명) 순으로 나타남.

<표 3> 조사대상자의 직업

(N=163)

구분	명 (%)
<b>공무원</b>	<b>41 (25%)</b>
보육교사	22 (13%)
관련 기관 종사자	37 (23%)
<b>주부</b>	<b>43 (26%)</b>
기타	20 (12%)

직업별 연령 분포대를 살펴본 결과(<표 4> 참조), 공무원은 40대(18명), 30대(13명) 순이었으며, 보육교사는 50대 이상(10명), 40대(6명)순이고, 지역 내 유관기관 종사자는 30대(14명), 40대(9명) 순으로 나타남. 일반 주부의 경우 40대(22명), 30대(11명) 순으로 나타남.

<표 4> 조사대상자의 직업별 연령

(N=163, 명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공무원	4 (2%)	13 (8%)	<b>18 (11%)</b>	6 (4%)
보육교사	3 (2%)	3 (2%)	6 (4%)	<b>10 (6%)</b>
관련 기관 종사자	7 (4%)	<b>14 (9%)</b>	9 (6%)	7 (4%)
주부	1 (1%)	11 (7%)	<b>22 (13%)</b>	9 (6%)
기타	1 (1%)	1 (1%)	<b>9 (6%)</b>	<b>9 (6%)</b>

(4) 결혼 및 자녀 유무

본 조사대상자의 결혼상태 및 자녀 유무는 <표 5>와 같이 나타남. 미혼의 경우 30대(18명), 20대(14명) 순이었으며, 기혼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대다수가 40대(52명), 50대 이상(39명)이었음.

<표 5> 조사대상자 결혼 및 자녀 유무

(N=163, 명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미혼	<b>14 (9%)</b>	<b>18 (11%)</b>	7 (4%)	1 (1%)
기혼 / 자녀 있음	2 (1%)	14 (9%)	<b>52 (32%)</b>	<b>39 (24%)</b>
기혼 / 자녀 없음	-	<b>10 (6%)</b>	4 (2%)	1 (1%)
미혼 / 자녀 있음	-	-	1 (1%)	

## 2) 다양한 가족의 인식 및 수용성 관련 일반적 특성 비교 결과 1)

### (1)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여성가족부 조사결과와 비교해 강북구 지역주민은 '혼인, 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있어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매우 개방적인 태도('동의한다' 112명, 69%)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혼인, 혈연의 중요성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외한 정서적 유대(친밀감) 공유가 가족의 의미에 있어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 6> 참조).

<표 6>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정도

(N=163)

문항	구분	명 (%)	전국조사 결과
혼인, 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이다'라고 생각한다.	동의한다	98 (60%)	69.7%가 '동의'라고 응답함.
	동의하지 않는다	61 (37%)	
	잘 모르겠다	4 (2%)	
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다'라고 생각한다.	동의한다	112 (69%)	39.9%가 '동의'라고 응답함.
	동의하지 않는다	48 (29%)	
	잘 모르겠다	3 (2%)	

###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1) 여성가족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 세상모든가족함께 사이트(<https://www.families.kr/waf/press/274>), 2020.07.01. 에서 발췌하여 비교하였음.

‘외국인과의 결혼’, ‘이혼 또는 재혼하는 것’, ‘비혼으로 혼자 사는 것’, ‘비혼으로 동거하는 것’, ‘결혼하고 무자녀로 사는 것’,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 것’, ‘미성년이 자녀를 낳는 것’으로 인해 구성되는 가족형태를 수용하겠다는가를 질문한 결과 (<표 7> 참조)는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와 비슷하게 강북구 지역주민 또한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141명, 86%), 이혼 또는 재혼으로 인한 한부모/복합가족(131명, 80%),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 않고 사는 자발적 무자녀가족(126명, 78%),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121명, 74%) 순으로 가족형태로서의 수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수용 정도가 위 형태보다는 좀 낮으나, 결혼하지 않고 사는 동거 커플(100명, 61%),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고 사는 사실혼 가족(93명, 57%) 역시 과반수 이상이 가족으로서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미성년으로서 자녀를 낳고 사는 형태는 37%(60명)가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며, 46%(46명)는 수용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7>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N=163)

문항	구분	명 (%)	전국조사결과
외국인과의 결혼 (다문화가족)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118 (72%)</b>	<b>92.7%</b> 가 '전적', '약간' 수용한다고 응답함.
	약간 수용 가능하다	<b>23 (14%)</b>	
	보통이다	17 (10%)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3 (2%)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2 (1%)	
이혼 또는 재혼하는것 (이혼/재혼가족)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100 (61%)</b>	<b>85.2%</b> 가 '전적', '약간' 수용한다고 응답함.
	약간 수용 가능하다	<b>31 (19%)</b>	
	보통이다	23 (14%)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8 ( 5%)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1 ( 1%)	

비혼으로 혼자 사는 것 (1인 가구)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99 (61%)</b>	<b>80.9%</b> 가 '전적', '약간' 수용한다고 응답함.
	약간 수용 가능하다	<b>22 (13%)</b>	
	보통이다	28 (17%)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8 ( 5%)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6 ( 4%)	
비혼으로 동거하는 것 (동거 가구)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62 (38%)</b>	67%가 '전적', '약간' 수용한다고 응답함.
	약간 수용 가능하다	<b>38 (23%)</b>	
	보통이다	37 (23%)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18 (11%)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8 ( 5%)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 않고 사는 것 (자발적 무자녀가족)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99 (61%)</b>	67.1%가 '전적', '약간' 수용한다고 응답함.
	약간 수용 가능하다	<b>27 (17%)</b>	
	보통이다	24 (15%)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10 ( 6%)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3 ( 2%)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 (사실혼 가족)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63 (39%)	48.3%가 '전적', '약간' 수용한다고 응답함.
	약간 수용 가능하다	30 (18%)	
	보통이다	30 (18%)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b>27 (17%)</b>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b>13 ( 8%)</b>	
미성년이 자녀를 낳는 것 (미성년(한)부모가족)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33 (20%)	29.5%가 '전적', '약간' 수용한다고 응답함.
	약간 수용 가능하다	27 (17%)	
	보통이다	29 (18%)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b>45 (28%)</b>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b>29 (18%)</b>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하려고 하는 상대방 가족이 다음과 같은 형태(입양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재혼가족, 미혼부/미혼모가족, 비혼동거가족)일 때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의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와 비슷하게, 입양된 자녀(132명, 77%), 한부모가족의 자녀(131명, 80%), 다문화가족의 자녀(124명, 76%), 재혼가족의 자녀(121명, 74%) 순으로 나타남. 또한 미혼부/미혼모가족의 자녀(98명, 60%), 비혼동거가족의 자녀(81명, 49%) 역시 수용하겠다는 비율이 과반수 또는 과반수 이상이 나타났으나, 각 가족 형태에서 ‘잘 모르겠다’를 선택한 경우가 20명에서 32명 정도 나타나, 사회적 수용도와 달리 개인적 수용은 이중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8>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N=163)

문항	구분	명 (%)	전국조사결과
입양된 자녀 (입양가족)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78 (44%)</b>	<b>80.4%</b> 가 '전적', '약간' 수용한다고 응답함.
	약간 수용 가능하다	<b>54 (33%)</b>	
	보통이다	24 (15%)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9 ( 6%)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4 ( 2%)	
한부모가족의 자녀 (한부모가족)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70 (43%)</b>	<b>81.2%</b> 가 '전적', '약간' 수용한다고 응답함.
	약간 수용 가능하다	<b>61 (37%)</b>	
	보통이다	20 (12%)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9 ( 6%)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3 ( 2%)	
다문화가족의 자녀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69 (42%)</b>	<b>79.7%</b> 가

(다문화가족)	약간 수용 가능하다	<b>55 (34%)</b>	'전적', '약간' 수용한다고 응답함.
	보통이다	20 (12%)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14 ( 9%)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5 ( 3%)	
재혼가족의 자녀 (재혼가족)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60 (37%)</b>	78.9%가 '전적', '약간' 수용한다고 응답함.
	약간 수용 가능하다	<b>61 (37%)</b>	
	보통이다	22 (13%)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14 ( 9%)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6 ( 4%)	
미혼부/미혼모가족의 자녀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54 (33%)</b>	60.8%가 '전적', '약간' 수용한다고 응답함.
	약간 수용 가능하다	<b>44 (27%)</b>	
	보통이다	25 (15%)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30 (18%)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10 ( 6%)	
비혼동거가족의 자녀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38 (23%)	48.2%가 '전적', '약간' 수용한다고 응답함.
	약간 수용 가능하다	43 (26%)	
	보통이다	<b>32 (20%)</b>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b>32 (20%)</b>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b>18 (11%)</b>	

(4)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 여부

다양한 가족 형태(한부모가족, 미혼부/미혼모가족, 1인가구, 사실혼/동거가구) 중 국가적 지원 및 정책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음.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와 비슷하게, 강북구 지역주민 역시 한부모가족(151명, 92%), 미혼부/미혼모가족(151명, 93%), 1인 가구(114명, 70%), 사실혼/동거 커플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110명, 67%) 순으로 과반수 이상이 각 가족유형에 따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그러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과 함께 고려해 본다면, 1인 가구와 사실혼/동거 커플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약 30% 정도 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표 9>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의 필요성 여부

(N=163)

문항	구분	명 (%)	전국조사결과
한부모가족	매우 필요하다	<b>105 (64%)</b>	<b>95.3%</b> 가 '매우',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함.
	약간 필요하다	<b>46 (28%)</b>	
	잘 모르겠다	9 ( 6%)	
	필요하지 않다	3 ( 2%)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 0%)	
미혼부/미혼모가족	매우 필요하다	<b>111 (68%)</b>	<b>90%</b> 가 '매우',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함.
	약간 필요하다	<b>40 (25%)</b>	
	잘 모르겠다	9 ( 6%)	
	필요하지 않다	1 (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 1%)	
1인 가구	매우 필요하다	<b>53 (33%)</b>	<b>78.3%</b> 가 '매우',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함.
	약간 필요하다	<b>61 (37%)</b>	
	잘 모르겠다	18 (11%)	
	필요하지 않다	27 (17%)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 2%)	

사실혼 / 동거 커플	매우 필요하다	<b>66 (40%)</b>	70.5%가 '매우',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함.
	약간 필요하다	<b>44 (27%)</b>	
	잘 모르겠다	31 (19%)	
	필요하지 않다	14 ( 9%)	
	전혀 필요하지 않다	8 ( 5%)	

### 3) 연령별, 직업별로 살펴본 다양한 가족의 인식 및 수용성

#### (1) 연령별로 살펴본 다양한 가족의 인식 및 수용성

##### ①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본 조사대상자 중 '혼인, 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있어 20대만 동의자(6명)보다 미동의자(10명)이 많이 나타났으며, 다른 연령대는 동의자가 더 많아 대체적으로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다'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전 연령에서 '동의한다'의 응답이 20대 9명(6%), 30대 30명(18%), 40대 48명(29%), 50대 이상 25명(15%)로 모두 높게 나타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0> 연령별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정도

(N=163, 명 (%))

문항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혼인, 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이다'라고 생각한다.	동의한다	6 (4%)	<b>26</b> <b>(16%)</b>	<b>38</b> <b>(23%)</b>	<b>28</b> <b>(17%)</b>
	동의하지 않는다	<b>10</b> <b>(6%)</b>	15 (9%)	23 (14%)	13 (8%)
	잘 모르겠다	-	1 (1%)	3 (2%)	-
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다'라고 생각한다.	동의한다	<b>9</b> <b>(6%)</b>	<b>30</b> <b>(18%)</b>	<b>48</b> <b>(29%)</b>	<b>25</b> <b>(15%)</b>
	동의하지 않는다	7 (4%)	10 (6%)	15 (9%)	16 (10%)
	잘 모르겠다	-	2 (1%)	1 (1%)	-

②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연령별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문항의 경우 어떤 분포를 나타내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2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전체적으로 높았으나,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고 사는 사실혼 가족과 미성년이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능의 의견이 일부 나옴. 또한 30대의 경우 전체 질문에서 '전적으로 수용 가능'의 응답률이 제일 높았으나, '미성년이 자녀를 낳는 것'의 질문에만 '약간 수용 가능'의 응답률(1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남. 40대의 경우, 응답자가 골고루 퍼져 있으나 다른 연령층과 동일하게 '미성년이 자녀를 낳는 것'의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약간 수용 불가능, 절대 수용 불가능)의 응답률이 19명(12%), 14명(9%)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50대 이상의 경우 '비혼으로 동거하는 것'과 '미성년이 자녀를 낳는 것'의 질문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6명(10%), 11명(7%)로 가장 많았음.

이를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이혼 또는 재혼으로 인한 한부모/복합가족,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가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고 사는 사실혼 가족과 미성년이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도가 낮고 부정적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50대 이상의 경우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가족에 대한 인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수용 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1> 연령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N=163, 명 (%))

문항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외국인과의 결혼 (다문화가족)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13 (8%)</b>	<b>32 (20%)</b>	<b>50 (31%)</b>	<b>23 (14%)</b>
	약간 수용 가능하다	2 (1%)	5 (3%)	11 (7%)	5 (3%)
	보통이다	1 (1%)	4 (2%)	2 (1%)	10 (6%)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	-	-	3 (2%)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	1 (1%)	1 (1%)	-
이혼 또는 재혼하는 (이혼/재혼 가족)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10 (6%)</b>	<b>30 (18%)</b>	<b>43 (26%)</b>	<b>17 (10%)</b>
	약간 수용 가능하다	5 (3%)	8 (5%)	13 (8%)	5 (3%)
	보통이다	1 (1%)	2 (1%)	6 (4%)	14 (9%)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	1 (1%)	2 (1%)	5 (3%)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	1 (1%)	-	-
비혼으로 혼자 사는 것 (1인 가구)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12 (7%)</b>	<b>30 (18%)</b>	<b>43 (26%)</b>	<b>14 (9%)</b>
	약간 수용 가능하다	3 (2%)	5 (3%)	7 (4%)	7 (4%)
	보통이다	1 (1%)	4 (2%)	10 (6%)	13 (8%)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	1 (1%)	4 (2%)	2 (2%)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	2 (1%)	-	4 (2%)
비혼으로 동거하는 것 (동거 가구)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6 (4%)</b>	<b>24 (15%)</b>	<b>26 (16%)</b>	6 (4%)
	약간 수용 가능하다	5 (3%)	9 (6%)	15 (9%)	9 (6%)
	보통이다	1 (1%)	4 (2%)	16 (10%)	<b>16 (10%)</b>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4 (2%)	3 (2%)	4 (2%)	7 (4%)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	2 (1%)	3 (2%)	3 (2%)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11 (7%)</b>	<b>31 (19%)</b>	<b>41 (25%)</b>	<b>16 (10%)</b>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 않고 사는 것 (자발적 무자녀가족)	약간 수용 가능하다	2 (1%)	6 (4%)	12 (7%)	7 (4%)
	보통이다	3 (2%)	2 (1%)	8 (5%)	11 (7%)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	2 (1%)	2 (1%)	6 (4%)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	1 (1%)	1 (1%)	1 (1%)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6 (4%)</b>	<b>23 (14%)</b>	<b>21 (13%)</b>	<b>13 (8%)</b>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 (사실혼 가족)	약간 수용 가능하다	1 (1%)	9 (6%)	15 (9%)	5 (3%)
	보통이다	1 (1%)	5 (3%)	12 (7%)	12 (7%)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5 (3%)	3 (2%)	10 (6%)	9 (6%)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3 (2%)	2 (1%)	6 (4%)	2 (1%)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4 (2%)</b>	8 (5%)	12 (7%)	9 (6%)
미성년이 자녀를 낳는 것 (미성년 (한)부모가족)	약간 수용 가능하다	3 (2%)	<b>13 (8%)</b>	7 (4%)	4 (2%)
	보통이다	1 (1%)	5 (3%)	12 (7%)	<b>11 (7%)</b>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b>4 (2%)</b>	12 (7%)	<b>19 (12%)</b>	10 (6%)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b>4 (2%)</b>	4 (2%)	14 (9%)	7 (4%)

### ③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연령별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의 의견 분포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20대의 경우, 전체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높으나 입양된 자녀, 미혼부모의 자녀, 비혼동거가족의 자녀에게는 수용 불가하다는 응답이 나타남. 30대의 경우, 전체적인 가족 수용도에 수용은 하지만, 전적으로 수용, 약간 수용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40대의 경우, 전체적으로 수용 정도가 높지만 재혼 가족의 자녀와 비혼 동거가족의 자녀에 대해서는 '약간 수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50대의 경우, 미혼부모가족의 자녀에 대해서는 수용 정도가 낮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됨.

이를 종합해보면 의외로 30대에서 전체적인 수용 정도는 높지만,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혼부모가족의 자녀와 비혼동거가족의 자녀에서는 수용 불가의 응답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2> 연령별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N=163, 명(%))

문항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입양된 자녀 (입양가족)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8 (5%)</b>	<b>18 (11%)</b>	<b>30 (18%)</b>	<b>16 (10%)</b>
	약간 수용 가능하다	5 (3%)	<b>18 (11%)</b>	19 (12%)	12 (7%)
	보통이다	2 (1%)	4 (2%)	9 (6%)	9 (6%)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1 (1%)	2 (2%)	4 (2%)	2 (1%)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	-	2 (1%)	2 (1%)

한부모가족의 자녀 (한부모가족)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8 (5%)</b>	17 (10%)	<b>27 (17%)</b>	<b>18 (11%)</b>
	약간 수용 가능하다	5 (3%)	<b>20 (12%)</b>	22 (13%)	15 (9%)
	보통이다	3 (2%)	4 (2%)	9 (6%)	4 (2%)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	1 (1%)	5 (3%)	3 (2%)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	-	1 (1%)	2 (1%)
다문화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9 (6%)</b>	<b>19 (12%)</b>	<b>26 (16%)</b>	<b>15 (9%)</b>
	약간 수용 가능하다	5 (3%)	15 (9%)	24 (15%)	11 (7%)
	보통이다	2 (1%)	2 (1%)	8 (5%)	8 (5%)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	5 (3%)	5 (3%)	3 (2%)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	1 (1%)	1 (1%)	3 (2%)
재혼가족의 자녀 (재혼가족)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8 (5%)</b>	15 (9%)	23 (14%)	<b>14 (9%)</b>
	약간 수용 가능하다	6 (4%)	<b>17 (10%)</b>	<b>25 (15%)</b>	13 (8%)
	보통이다	2 (1%)	3 (2%)	9 (6%)	8 (5%)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	6 (4%)	5 (3%)	3 (2%)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	1 (1%)	2 (1%)	3 (2%)
미혼부/미혼모 가족의 자녀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9 (6%)</b>	<b>14 (9%)</b>	<b>21 (13%)</b>	<b>10 (6%)</b>
	약간 수용 가능하다	2 (1%)	<b>14 (9%)</b>	19 (12%)	9 (6%)
	보통이다	4 (2%)	3 (2%)	9 (6%)	9 (6%)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1 (1%)	8 (5%)	11 (7%)	<b>10 (6%)</b>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	3 (2%)	4 (2%)	3 (2%)
비혼동거가족의 자녀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4 (2%)</b>	<b>14 (9%)</b>	15 (9%)	5 (3%)
	약간 수용	<b>4 (2%)</b>	<b>14 (9%)</b>	<b>18 (11%)</b>	7 (4%)

	가능하다				
	보통이다	3 (2%)	5 (3%)	11 (7%)	<b>13 (8%)</b>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1 (1%)	6 (4%)	15 (9%)	10 (6%)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4 (2%)	3 (2%)	5 (3%)	6 (4%)

④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 여부

연령별로 다양한 가족 형태(한부모가족, 미혼부/미혼모가족, 1인가구, 사실혼/동거 가구) 중 국가적 지원 및 정책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분포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음.

전체적으로 각 연령대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40대와 50대의 경우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27명, 17%)보다 '약간 필요하다'라는 응답(42명, 26%)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1인 가구와 사실혼/동거 커플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다른 가족의 지원 및 정책에 대한 부분보다 높게 나타남.

<표 13> 연령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의 필요성 여부

(N=163, 명 (%))

문항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한부모가족	매우 필요하다	<b>11 (7%)</b>	<b>27 (17%)</b>	<b>38 (23%)</b>	<b>29 (18%)</b>
	약간 필요하다	5 (3%)	12 (7%)	21 (13%)	8 (5%)
	잘 모르겠다	-	3 (2%)	3 (2%)	3 (2%)
	필요하지 않다	-	-	2 (1%)	1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미혼부/미혼모 가족	매우 필요하다	<b>10 (6%)</b>	<b>28 (17%)</b>	<b>45 (28%)</b>	<b>28 (17%)</b>
	약간 필요하다	5 (3%)	12 (7%)	15 (9%)	8 (5%)

	잘 모르겠다	1 (1%)	1 (1%)	4 (2%)	3 (2%)
	필요하지 않다	-	-	-	1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	1 (1%)	-	1 (1%)
1인 가구	매우 필요하다	<b>8 (5%)</b>	<b>18 (11%)</b>	18 (11%)	9 (6%)
	약간 필요하다	6 (4%)	13 (8%)	<b>21 (13%)</b>	<b>21 (13%)</b>
	잘 모르겠다	-	3 (2%)	9 (6%)	6 (4%)
	필요하지 않다	1 (1%)	6 (4%)	<b>15 (9%)</b>	5 (3%)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1%)	2 (1%)	<b>1 (1%)</b>	-
사실혼 / 동거 커플	매우 필요하다	<b>5 (3%)</b>	<b>22 (13%)</b>	<b>24 (15%)</b>	<b>15 (9%)</b>
	약간 필요하다	<b>5 (3%)</b>	8 (5%)	17 (10%)	14 (9%)
	잘 모르겠다	3 (2%)	5 (3%)	17 (10%)	6 (4%)
	필요하지 않다	1 (1%)	5 (3%)	5 (3%)	3 (2%)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1%)	2 (1%)	1 (1%)	3 (2%)

## (2) 직업별로 살펴본 다양한 가족의 인식 및 수용성

### ①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직업별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14>와 같음.

'혼인, 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이라고 생각한다'의 경우 대다수의 직업군별로 '동의한다'가 높았으나, '공무원'의 경우 동의, 비동의한다가 비슷한 분포를 보여 다른 직업군에 비해 가장 보수적인 의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다'라는 문항은 각 직업별로 모두 '동의한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부'

의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가 좀 더 높은 점에 비추어 일반 가정주부의 경우 가족의 의미에 대해 좀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4> 직업별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정도

(N=163, 명 (%))

문항	구분	공무원	보육 교사	센터 기관 종사자	주부	기타
혼인, 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이다'라고 생각한다.	동의한다	<b>21</b> <b>(13%)</b>	<b>13</b> <b>(8%)</b>	<b>25</b> <b>(15%)</b>	<b>27</b> <b>(17%)</b>	<b>12</b> <b>(7%)</b>
	동의하지 않는다	<b>19</b> <b>(12%)</b>	8 (5%)	11 (7%)	15 (9%)	8 (5%)
	잘 모르겠다	1 (1%)	1 (1%)	1 (1%)	1 (1%)	-
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다' 라고 생각한다.	동의한다	<b>31</b> <b>(19%)</b>	<b>14</b> <b>(9%)</b>	<b>26</b> <b>(16%)</b>	<b>28</b> <b>(17%)</b>	<b>13</b> <b>(8%)</b>
	동의하지 않는다	9 (6%)	8 (5%)	10 (6%)	<b>14</b> <b>(9%)</b>	7 (4%)
	잘 모르겠다	1 (1%)	-	1 (1%)	1 (1%)	-

## ②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직업별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조사 결과 어떤 분포를 나타내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음.

공무원의 경우, '다문화가족', '이혼/재혼가족', '1인가구', '자발적 무자녀가족'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또는 약간 수용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동거가구, 사실혼가구, 미성년(한)부모가족의 경우 앞의 가족형태에 비해 수용 가능하지 않거나,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좀 더 높게 나타남. 보육교사의 경우는 대다수의 가족형태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특히 미성년(한)부모가족의 경우 수용 가능하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다른 가족형태에 비해 좀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센터 유관 기관 종사자는 다른 직업에 비해 좀 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주부의 경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직

업에 비해 좀 더 보수적인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자발적 무자녀 가족, 사실혼, 미성년(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다른 직업군보다 좀 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5> 직업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N=163, 명 (%))

문항	구분	공무원	보육 교사	센터기관 종사자	주부	기타
외국인과의 결혼 (다문화가족)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28</b> <b>(17%)</b>	<b>14</b> <b>(9%)</b>	<b>33</b> <b>(20%)</b>	<b>31</b> <b>(19%)</b>	<b>12</b> <b>(7%)</b>
	약간 수용 가능하다	9 (6%)	5 (3%)	2 (1%)	3 (2%)	3 (2%)
	보통이다	3 (2%)	2 (1%)	2 (1%)	5 (3%)	5 (3%)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	1 (1%)	-	2 (1%)	-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1 (1%)	-	-	1 (1%)	-
	이혼 또는 재혼하는 (이혼/재혼가족)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24</b> <b>(15%)</b>	<b>10</b> <b>(6%)</b>	<b>29</b> <b>(18%)</b>	<b>28</b> <b>(17%)</b>
약간 수용 가능하다	11 (7%)	6 (4%)	5 (3%)	6 (4%)	3 (2%)	
보통이다	4 (2%)	5 (3%)	2 (1%)	7 (4%)	5 (3%)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1 (1%)	1 (1%)	1 (1%)	2 (1%)	3 (2%)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1 (1%)	-	-	-	-	
비혼으로 혼자 사는 것 (1인 가구)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24</b> <b>(15%)</b>	<b>10</b> <b>(6%)</b>	<b>31</b> <b>(19%)</b>	<b>23</b> <b>(14%)</b>	<b>11</b> <b>(7%)</b>
	약간 수용 가능하다	8 (5%)	5 (3%)	2 (1%)	5 (3%)	2 (1%)
	보통이다	6 (4%)	6 (4%)	3 (2%)	10 (6%)	3 (2%)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1 (1%)	1 (1%)	1 (1%)	2 (1%)	3 (2%)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2 (1%)	-	-	3 (2%)	1 (1%)
	비혼으로	전적으로 수용	<b>17</b> <b>(10%)</b>	5 (3%)	<b>20</b> <b>(12%)</b>	<b>14</b> <b>(9%)</b>

동거하는 것 (동거 가구)	가능하다					
	약간 수용 가능하다	14 (9%)	5 (3%)	6 (4%)	8 (5%)	5 (3%)
	보통이다	5 (3%)	<b>9</b> <b>(6%)</b>	5 (3%)	13 (8%)	5 (3%)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2 (1%)	3 (2%)	<b>6</b> <b>(4%)</b>	4 (2%)	3 (2%)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3 (2%)	-	-	4 (2%)	1 (1%)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 않고 사는 것 (자발적 무자녀가족)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b>24</b> <b>(15%)</b>	<b>10</b> <b>(6%)</b>	<b>31</b> <b>(19%)</b>	<b>23</b> <b>(14%)</b>	<b>11</b> <b>(7%)</b>
	약간 수용 가능하다	8 (5%)	7 (4%)	3 (2%)	6 (4%)	3 (2%)
	보통이다	6 (4%)	4 (2%)	3 (2%)	9 (6%)	2 (1%)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1 (1%)	1 (1%)	-	<b>5</b> <b>(3%)</b>	3 (2%)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2 (1%)	-	-	-	1 (1%)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 (사실혼 가족)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12 (7%)	4 (2%)	<b>25</b> <b>(15%)</b>	<b>14</b> <b>(9%)</b>	<b>8</b> <b>(5%)</b>
	약간 수용 가능하다	<b>13</b> <b>(8%)</b>	3 (2%)	2 (1%)	10 (6%)	2 (1%)
	보통이다	7 (4%)	<b>7</b> <b>(4%)</b>	3 (2%)	9 (6%)	4 (2%)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5 (3%)	6 (4%)	6 (4%)	6 (4%)	4 (2%)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4 (2%)	2 (1%)	1 (1%)	4 (2%)	2 (1%)
미성년이 자녀를 낳는 것 (미성년 (한)부모가족)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5 (3%)	3 (2%)	<b>13</b> <b>(8%)</b>	7 (4%)	5 (3%)
	약간 수용 가능하다	<b>13</b> <b>(8%)</b>	3 (2%)	8 (5%)	2 (1%)	1 (1%)
	보통이다	8 (5%)	<b>6</b> <b>(4%)</b>	3 (2%)	<b>10</b> <b>(6%)</b>	2 (1%)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6 (4%)	<b>6</b> <b>(4%)</b>	10 (6%)	17 (10%)	<b>6</b> <b>(4%)</b>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b>9</b> <b>(6%)</b>	4 (2%)	3 (2%)	<b>7</b> <b>(4%)</b>	<b>6</b> <b>(4%)</b>

③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직업별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에 따른 의견 분포 조사 결과는 다음 <표 16>과 같음.

공무원의 경우, 다양한 가족에 대해 사회적인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적 수용도의 경우 '전적으로'보다는 '약간' 수용 가능하다고 해서 사회적인 가치와 개인적 차이의 차이가 나타남을 비교할 수 있었음. 보육교사의 경우는 다양한 가족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가능하다'의 응답을 보였으나, '다문화가족', '미혼모/부가족', '비혼동거가족'의 경우 '어느 정도 수용가능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보였음. 센터 유관 기관 종사자의 경우 사회적 수용도와 비슷하게 개인적 수용도 역시 높은 분포를 나타냈음. 주부의 경우 사회적 수용도와 비슷하게 개인적 수용도 역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나, '미혼모/부가족', '비혼동거가족'의 경우 수용가능하지 않다는 의견 역시 나타내고 있음.

<표 16> 직업별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N=163, 명(%))

문항	구분	공무원	보육교사	센터기관 종사자	주부	기타
입양된 자녀 (입양가족)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13 (18%)	<b>8</b> <b>(5%)</b>	<b>25</b> <b>(15%)</b>	<b>15</b> <b>(9%)</b>	<b>11</b> <b>(7%)</b>
	약간 수용 가능하다	<b>20</b> <b>(12%)</b>	7 (4%)	10 (6%)	14 (9%)	3 (2%)
	보통이다	5 (3%)	5 (3%)	-	9 (6%)	5 (3%)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3 (2%)	2 (1%)	1 (1%)	2 (1%)	1 (1%)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	-	1 (1%)	3 (2%)	-
	한부모가족의 자녀 (한부모가족)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13 (8%)	8 (5%)	<b>23</b> <b>(14%)</b>	<b>16</b> <b>(10%)</b>
한부모가족의 자녀 (한부모가족)	약간 수용 가능하다	<b>20</b> <b>(12%)</b>	<b>9</b> <b>(6%)</b>	9 (6%)	<b>16</b> <b>(10%)</b>	7 (4%)
	보통이다	4 (2%)	4 (2%)	4 (2%)	7 (4%)	1 (1%)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4 (2%)	1 (1%)	-	2 (1%)	2 (1%)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	-	1 (1%)	2 (1%)	-
다문화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12 (7%)	<b>7</b> <b>(4%)</b>	<b>23</b> <b>(14%)</b>	<b>17</b> <b>(10%)</b>	<b>10</b> <b>(6%)</b>
	약간 수용 가능하다	<b>20</b> <b>(12%)</b>	<b>7</b> <b>(4%)</b>	9 (6%)	13 (8%)	6 (4%)
	보통이다	5 (3%)	5 (3%)	2 (1%)	7 (4%)	1 (1%)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3 (2%)	<b>3</b> <b>(2%)</b>	2 (1%)	3 (2%)	3 (2%)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1 (1%)	-	1 (1%)	3 (2%)	-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13 (8%)	7 (4%)	<b>19</b> <b>(12%)</b>	12 (7%)	<b>9</b> <b>(6%)</b>
재혼가족의 자녀 (재혼가족)	약간 수용 가능하다	<b>20</b> <b>(12%)</b>	<b>9</b> <b>(6%)</b>	12 (7%)	<b>17</b> <b>(10%)</b>	3 (2%)
	보통이다	4 (2%)	5 (3%)	2 (1%)	6 (4%)	5 (3%)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3 (2%)	1 (1%)	3 (2%)	4 (2%)	3 (2%)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1 (1%)	-	1 (1%)	4 (2%)	-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12 (7%)	<b>8</b> <b>(5%)</b>	<b>19</b> <b>(12%)</b>	9 (6%)	6 (4%)
미혼부/미혼모 가족의 자녀	약간 수용 가능하다	<b>16</b> <b>(10%)</b>	5 (3%)	8 (5%)	<b>10</b> <b>(6%)</b>	5 (3%)
	보통이다	5 (3%)	3 (2%)	6 (4%)	<b>10</b> <b>(6%)</b>	1 (1%)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7 (4%)	<b>6</b> <b>(4%)</b>	3 (2%)	6 (4%)	<b>8</b> <b>(5%)</b>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1 (1%)	-	1 (1%)	8 (5%)	-
	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11 (7%)	5 (3%)	<b>16</b> <b>(10%)</b>	3 (2%)	3 (2%)
비혼동거 가족의 자녀	약간 수용 가능하다	<b>14</b> <b>(9%)</b>	3 (2%)	7 (4%)	<b>14</b> <b>(9%)</b>	5 (3%)
	보통이다	7 (4%)	6 (4%)	7 (4%)	9 (6%)	3 (2%)
	약간 수용 가능하지 않다	7 (4%)	<b>7</b> <b>(4%)</b>	3 (2%)	9 (6%)	<b>6</b> <b>(4%)</b>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다	2 (1%)	1 (1%)	4 (2%)	8 (5%)	3 (2%)
--	------------------	-----------	-----------	-----------	-----------	-----------

④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 여부

직업별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 여부'에 따른 의견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7>과 같음.

공무원의 경우, '미혼모/부가족', '한부모가족', '사실혼/동거커플' 가구, '1인 가구' 순으로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사실혼/동거커플'의 경우 잘 모르겠다 또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났음. 보육교사의 경우, '한부모가족', '미혼모/부가족'에 대한 정책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나머지 두 가족 형태는 '약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음. 센터 유관기관 종사자의 경우, 각 가족유형별 가족정책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부의 경우, '한부모가족', '미혼모/부가족'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인 가구'와 '사실혼/동거커플' 관련 정책은 '잘 모르겠다' 또는 '필요하지 않다'의 부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7> 직업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의 필요성 여부

(N=163, 명 (%))

문항	구분	공무원	보육 교사	센터기관 종사자	주부	기타
한부모가족	매우 필요하다	<b>20</b> <b>(12%)</b>	<b>19</b> <b>(12%)</b>	<b>25</b> <b>(15%)</b>	<b>30</b> <b>(18%)</b>	<b>11</b> <b>(7%)</b>
	약간 필요하다	18 (11%)	3 (2%)	9 (6%)	9 (6%)	7 (4%)
	잘 모르겠다	2 (1%)	-	2 (1%)	4 (2%)	1 (1%)
	필요하지 않다	1 (1%)	-	1 (1%)	-	1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미혼부/미혼 모가족	매우 필요하다	<b>26</b> <b>(16%)</b>	<b>19</b> <b>(12%)</b>	<b>25</b> <b>(15%)</b>	<b>28</b> <b>(17%)</b>	<b>13</b> <b>(8%)</b>

	약간 필요하다	12 (7%)	3 (2%)	10 (6%)	9 (6%)	6 (4%)
	잘 모르겠다	3 (2%)	-	1 (1%)	4 (2%)	1 (1%)
	필요하지 않다	-	-	-	1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1 (1%)	1 (1%)	-
1인 가구	매우 필요하다	<b>16</b> <b>(10%)</b>	7 (4%)	<b>16</b> <b>(10%)</b>	10 (6%)	4 (2%)
	약간 필요하다	15 (9%)	<b>11</b> <b>(7%)</b>	12 (7%)	<b>14</b> <b>(9%)</b>	<b>9</b> <b>(6%)</b>
	잘 모르겠다	4 (2%)	2 (1%)	3 (2%)	6 (4%)	3 (2%)
	필요하지 않다	6 (4%)	1 (1%)	6 (4%)	11 (7%)	3 (2%)
	전혀 필요하지 않다	-	1 (1%)	-	2 (1%)	1 (1%)
사실혼 / 동거 커플	매우 필요하다	<b>20</b> <b>(12%)</b>	9 (6%)	<b>18</b> <b>(11%)</b>	12 (7%)	<b>7</b> <b>(4%)</b>
	약간 필요하다	13 (8%)	<b>10</b> <b>(6%)</b>	6 (4%)	9 (6%)	6 (4%)
	잘 모르겠다	6 (4%)	3 (2%)	6 (4%)	<b>15</b> <b>(9%)</b>	1 (1%)
	필요하지 않다	2 (1%)	-	<b>5</b> <b>(3%)</b>	3 (2%)	4 (2%)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b>2</b> <b>(1%)</b>	4 (2%)	2 (1%)

#### 4. 결론 및 제한점

본 조사는 강북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센터의 '다양한 가족 수용성' 관련 사업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 하에 진행한 것임.

최종 163명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한 결과, 강북구 지역주민은 가족의 의미에 있어 '혼인, 혈연, 정서적 유대' 모두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도 역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적인 수용도에 대한 조사 결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남

결과에 비추어 여전히 내 가족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보수적인 경향이 좀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연령별, 직업별로 분포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모든 가족 형태에서 개방적일 것이라 여긴 20대가 수용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일 것이다라는 의견 역시 편견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직업별 분포 역시 공무원, 보육교사, 유관기관 종사자의 경우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별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수용 관련 프로그램 진행 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가족 수용성' 관련 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별, 직업별로 이들의 욕구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그러나 본 조사가 연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 문항의 한계가 있으며, 조사대상자 역시 의도적인 분류를 토대로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결과의 제한점은 있음. 또한 10대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10대의 가족 수용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볼 수 없었으며, 좀 더 다양한 직업군별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현장에서 사업을 도입함에 있어 지역 내 주민의 욕구 또는 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함.